

나르시시즘의 거울 만들기로서의 이광수의 자전적 글쓰기

정홍섭*

목차

1. 이광수 문학의 한 본질로서의 나르시시즘과 자전적 성격
2. 도산의 죽음을 전후한 위기 상황의 자전적 글쓰기의 특징
3. 해방 이후 자전적 글쓰기의 착잡한 '나'의 나르시시즘
4.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 몇 가지

〈국문초록〉

이 논문은 나르시시즘과 자전적 성격의 글쓰기가 춘원 이광수 문학의 한 가지 중요한 본질이며 이 양자의 연관성과 그 연관성 속에서의 양자의 변화 과정을 포착하는 것이 춘원 문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적절한 방법임을 확인한 이전 논문의 후속 작업이다. 춘원 이광수와 도산 안창호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 시기 춘원 이광수 문학의 나르시시즘과 자전적 글쓰기의 연관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본 이전 논문의 작업에 이어서, 본고에서는 도산의 죽음을 전후로 하여 이광수의 자전적 글쓰기에서 나르시시즘이 어떤 변화와 연속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본고에서 살핀 시기에도 이광수의 '민족의 지도자 나르시시즘'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도산의 죽음 이전과 이후에, 그리고 도산이 죽고 나서 이광수가 친일에 앞장서고 해방을 맞이한 뒤에 자전적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은 연속성과 함께 중요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전자와 후자의 시기의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 각

* 아주대학교 강의교수

각 『그의 자서전』과 「무명」·「육장기」, 그리고 『돌베개』·『나의 고백』 등이다.

한편 도산 못지않게 이광수의 삶과 (자전적)글쓰기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단재 신채호다. 그 영향은 이광수의 여러 글에서 발견되지만, 도산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단재의 죽음이 이광수의 자전적 글쓰기와 그 속에 담긴 그의 나르시시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의 자서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도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죽은 단재를 통해서도 그는 예의 나르시시즘으로 표현된 바 자신의 삶의 행적의 정당성을 추인받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는 해방 이후의 격변하는 상황에서 쓴 『나의 고백』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핵심어 이광수 문학, 나르시시즘, 자전적 글쓰기, 도산, 단재

1. 이광수 문학의 한 본질로서의 나르시시즘과 자전적 성격

본고는 나르시시즘과 자전적 성격의 글쓰기가 춘원 이광수 문학의 한 가지 중요한 본질이며 이 양자의 연관성과 그 연관성 속에서의 양자의 변화 과정을 포착하는 것이 춘원 문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적절한 방법임을 확인한 이전 논문¹⁾의 후속 작업이다. 다시 말해서 이전 논문이 담고 있는 핵심적 문제의식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춘원 문학 전반에는 나르시시즘의 성격이 하나의 중요한 본질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관한 지적도 계속해서 있어 왔다.²⁾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면

1) 정홍섭, 「춘원 문학의 나르시시즘과 자전적 성격 : 「농촌계발」과 「민족개조론」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2) 이와 관련하여 위 논문에서 제시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김남천, 「춘원 이광수 씨를 말함 - 주로 정치와 문학과와의 관련에 기(基)하여」, 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2000, 162면(『조선중앙일보』, 1936.5.6.).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167면.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1986은 여러 곳에서 나르시시즘을 이광수 문학의 전반적 특징으로 지적한다.

서 이광수 문학의 나르시시즘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춘원 문학의 자전적 성격 또한 그의 글쓰기 전반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긴요하며 이에 관해서도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는데³⁾, 중요한 것은 그의 전기적 사실 속에서 이 두 가지 면을 연관 지어 고찰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이다. 요컨대 선행 연구자들이 밝힌바 이광수 문학의 특징인 나르시시즘과 자전적 성격이 특히 어떤 연결 고리를 통해 서로 연관되어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광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바로 그 검토가 필자의 이전 논문에서 새롭게 시도한 작업이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자는 우선 춘원 문학의 나르시시즘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하인즈 코헷의 나르시시즘 이론을 이용했다.⁴⁾ 프로이트와는 달리 코헷은 나르시시즘을 인간의 정신적 성장에서 병리적 현상이 아닌 정상적이고도 필수적인 발달과정으로 보면서 병적인 나르시시즘이 아닌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는 조건에 관심을 둔다. 이를 위해 그가 도입하는 중요 개념이 ‘자기대상(self object)’, ‘공감(empathy)’, ‘최적의 좌절(optimal frustration)’이다.⁵⁾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기대상’인데, 이 ‘자기대상’이 현실에서는 부모 또는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⁶⁾으로서 아이에게 ‘공감’과 ‘최적의 좌절’을

3)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를 소개했다.

방민호, 「이광수의 자전적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어문학논총』 2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강현국, 「기억의 연금술-이광수 문학의 자전적 성격 연구」, 『한국학연구』 3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서은혜, 「이광수 소설의 ‘암시된 저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7.

4) 하인즈 코헷의 이론을 도입하여 이광수의 『무정』을 분석한 신성환의 선행 논문을 통해 필자는 이광수 문학 전반의 나르시시즘을 살펴보는 데 한편으로 중요한 실마리를 얻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신성환, 『《무정》의 세 가지 연애담, 이성애와 나르시시즘 - 《무정》 새롭게 다시 읽기의 한 방법』, 『한국언어문화』 6,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참조.

5) 이에 관해서는 신성환의 위 논문과 하인즈 코헷의 다음 저서 및 필자의 앞의 글 참조.

하인즈 코헷, 이재훈 역, 『자기의 분석』,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6) 뒤에 보겠지만, 춘원에게 이 사람이 부재할 때 그것은 어떤 관념으로도 나타난다.

경험하게 해 줌으로써 아이가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키워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춘원 아광수라는 인물과 그의 글쓰기를 이해하는 데 코헛의 이론이 적절한 것은,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되어 애초부터 남들보다 더 '자기대상'에 대한 갈구가 깊을 수밖에 없었던 데다 재능은 남다르게 타고나 그 갈구가 실제로는 더욱 깊었던 그의 성장 과정의 내면을 코헛의 이론이 잘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열여덟 살 적에 쓴 등단 초기의 「愛か(사랑인가)」(1909)에서 「사랑에 주렸던 이들」(1925)과 「사랑의 다각형」(1930), 그리고 『사랑』(1938)을 거쳐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집필한 마지막 장편소설 『사랑의 동명왕』(1950)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주제로 '사랑'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거나 제목 속에 넣은 소설이 그의 문학의 시작과 줄기와 끝막음을 이루고 있다는 것⁷⁾은 '자기대상(=사랑)'의 갈구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평생 그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자전적 글쓰기가 주를 이루는 춘원 문학의 나르시시즘의 성격과 그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그의 전기적 사실은 청년기에 접어든 고아 이광수에게 부모와 같은 '자기대상'이 되어 준 도산과의 만남과 이별에서 찾아야 하고, 실제로 도산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그의 자전적 글쓰기 속에 있는 나르시시즘의 본질이 제대로 규명된다는 것이 필자의 이전 논문의 분석이었다. 즉, 춘원의 상해 임시정부 활동 이전과 이후의 그의 글쓰기의 나르시시즘과 자전적 성격의 연속성과 변화 양상을 특히 아주 잘 보여 준다고 생각되는 「농촌계발」과 「민족개조론」을 살펴본 결과, 양자 모두 스스로를 민족의 지도자로 자부하는 나르시시즘의 성격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후자에서는 도산과의 만남과 흥사단 입단으로 얻은 자신감이 조선 민중을 역지사지의 태도로 이해, 즉 '공감'하는 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훨씬 더 일방적으로 '대상화'하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이전 논문의 작업을 진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요 대상

7) 정홍섭, 앞의 글, 115면.

작품은 1930년대의 대표적인 자전적 작품인 『그의 자서전』, 「무명」, 「육장기」와 해방 이후의 『나』, 『돌베개』, 『나의 고백』 등이다. 전자의 작품들을 주목하는 것은 도산의 죽음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이 작품들이 그 이전과 이후 시기의 자전적 글쓰기를 대표함과 동시에 양 시기의 나르시시즘의 변화 양상과 연속성을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후자의 작품들은, 도산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이광수가 친일에 앞장선 후 해방 정국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의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여 주는 자전적 작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이광수에게는 평생 동안 도산에 버금가는 ‘자기대상’의 인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단재 신채호다. 이광수는 젊은 시절부터 단재 신채호에게 큰 영향을 받았음을 그의 여러 글을 통해 확인시켜 주는데, 이광수가 단재를 ‘자기대상’으로 삼는 양상은 도산과의 관계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 역시 간략하게나마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산의 죽음을 전후한 위기 상황의 자전적 글쓰기의 특징

식민지 체제하에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에 최초로 좌우 합작을 이룬 결사체인 신간회(1927.2.15.~1931.5.16.)가 해소된 직후에 쓴 「지도자론」(『동광』, 1931.7.)에서 춘원 이광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단언을 한다.

원래 신간회는 지도 단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었다. 첫째는, 그는 민족이 따를 만한 이론을 가지지 못하였고, 둘째로 신간회에는 중시될 만한 지도자가 없었고, 셋째로 신간회의 주의·정신을 생명으로 하는(주의·정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았거니와) 단원이 희소하였다. 신간회는 지도 단체의 삼 요소를 구결(具缺)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지도 단체와 지도자를 가지지 못한 금일의 조선민족은 민족운동을 가지지

못한 민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조선민족이 합리적이고 강력적인 중심 지도 단체가 생기는 날이 진실로 조선민족
이 민족적 신운동, 신생활의 신기원을 여는 날이다.⁸⁾

춘원이 신간회를 조선 민족의 지도 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동우회가 신간회에 참여하지도 신간회를 주도하지도 않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⁹⁾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도산이 신간회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일 것이다. 신간회 해소 직후에 그는 그래서 그것에 관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뒤로 채 1년이 못 된 1932년 6월, 십여 년 전 자신은 상해에서 그의 단호한 만류를 뿌리치고 달아나듯 귀국했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경외하면서 의식적·무의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었던 이 해 4월에 상해에서 체포된 도산이 국내로 압송되어 투옥되었을 때, 춘원에게 닥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1932년은, 비록 「흙」이 아직 연재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도 춘원의 내면 풍경은 황량해지기 시작하여 견잡기 어려웠다. 그의 삶의 균형감각은 깨진 것이다”¹⁰⁾라는 판단에 공감한다.¹¹⁾

8) 이광수, 박종화 외 편, 『이광수 전집』 10, 삼중당, 1972, 190면.

9) 이 입장의 배경에는, 동우회의 설립 이념 자체가 정치성을 배제한 것이기도 했지만 춘원이 좌익과의 동반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다(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앞서 인용한바 도산과 춘원 사이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관한 김산의 증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해방 이후에 쓴 『돌베개』 가운데 사름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에 돌아와서 쓴 「내 나라」라는 글에서 반공(反共)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좌우합작 시도를 명백히 부정한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할 것이다.

10)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3, 한길사, 1986, 893면.

11) 김윤식은 이 대목에서 그 유력한 증거로서 춘원이 이 해 9월에 쓴 시 한 편을 소개하는데, 이 시야말로 당시 춘원의 심리 상태를 더할 나위 없이 솔직하게 보여준다. 낙담, 절망, 허무, 수치의 심리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시에서 자신의 나이를 마흔한째 ‘돌’이라고 부르는 것이 특히 인상적이다. 나이를 가리키는 의미일 때 ‘돌’은 두세 살 아이에게 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옥 안에 있을지언정 도산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춘원의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시기에 그가 '나'에 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짙막한 글을 여러 편 쓴다는 점이다. 그중 하나인 「나의 최근 심경」(『신인문학』, 1935.3.)에서, 그는 불혹의 나이를 지났으면서도 삶의 철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확고한 인생관을 세우기 위해 철학과 종교에 관한 책을 많이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전에는 국가니 사회니 민족이니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그 '라이프'에 대하여 가장 머리를 많이 썩였지마는, 지금은 그것보다 나 자신에 대한 '라이프'를 모르니까 그것부터 알아보려 하는 것입니다.¹²⁾

마흔한째 돌

마흔한째 돌도 그저께 지냈으니
나이 이만하면 맘 잡을 만하건마는
타고남 흐려 그런가 더욱 들떠하노라

고요한 혼자 때면 인생이 멀어지네
항렬 지난 뒤에 이 몸 혼자 떨어진 듯
희망도 따를 기운도 다 풀린 듯하여라

(……)

사십 년 헛된 살을 불에 넣고 싶어라

모르는 친구들이 나를 아껴 주을 적이
그 적이 더더구나 죽고 싶은 적이로다
혹시나 칭찬 줄 때면 매 맞는 듯하여라

사십에 한 일 없이 더 바랄 것 무엇이리?
속임 아니언만 속인 것만 같은지고
툭 털어 말끔하오면 염체 없는 내외다

1932.9.4, 신의주역 호텔에서

이광수, 『이광수 전집』 9, 삼중당, 1972, 558면

12) 이광수, 『이광수 전집』 8, 삼중당, 1972, 411면

윗글은 도산이 2년 6개월 간 투옥되어 있다가 대전형무소에서 가출옥되는(1935년 2월 10일) 즈음에 쓰였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니 사회니 민족”보다 “나 자신”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해서, (자신을 도산과 동일시하고자 하는)춘원이 스스로를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난 것일까. 1936년 11월 11일은 감옥에서 풀려난 도산이 평남 대동군 대보면의 송태산장으로 들어간 날인데, 바로 이 무렵에 쓴 아주 짧은 글 「나의 묘지명」(『삼천리』, 1936.11.)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죄 많은 이 몸뚱아리를 세브란스 병원의 해부대에 올려놓아 학생들의 연구재료로나 써 달라”고 하면서도 만일 가족이나 친우가 묘비를 세운다면 “이광수는 조선 사람을 위하여 일하던 사람이다”¹³⁾라고 써 주기를 바란다.

앞서 살펴본 맥락에서 볼 때 그가 처음으로 ‘자서전’을 의도하고 쓴 『그의 자서전』(『조선일보』, 1936.12.22.~1937.5.1.)의 제목과 발표 시기는 매우 상징적이다. 무엇보다도, 이 글은 도산이 송태산장에 들어간 직후부터, 일제의 중일전쟁 도발 직전에 도산과 춘원을 비롯한 동우회 회원이 일제히 검거되기 직전까지, 그리고 춘원은 예상하지 못했을 테지만¹⁴⁾ 도산이 서거하기 얼마 전까지 연재되었다. 둘째는 이러한 비상한 상황에서 춘원은 자신과 도산과의 관계를 주되게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일생을 일관된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나’를 그대로 ‘나’로 부르지 않고 ‘그’로 부른다는 점 또한 상징적이다. 이는 물론 일제의

13) 위의 책, 598면.

14) 도산이 춘원에게 말 그대로 절대적인 정신적 지주라는 것은 1925년에 춘원이 도산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선생께서도 지금 사십팔, 작년 북경서 뵈을 때에 몹시 수척하신 양을 뵈고는 펍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설마 하늘이 조선에게서 선생 한 분까지야 빼앗아가지, 적더라도 금후 이십년 동안만 건재하여 우리를 지도하게 해 주소서 하고 빌었습니다. 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할 것을 믿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개벽』, 1925.8, 27~28면.)

1925년 8월에서 20년 후면 공교롭게도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때가 된다. 물론 이때 춘원은 도산이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고 자신의 기도가 무색하리만큼 그렇게 너무도 이른 때에 서거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검열을 의식하면서 소설의 허구 형식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만, 자신이 동일시하(고자 하)는 도산이 생존해 있는 세상에서는 아직 ‘나’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도 ‘나’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그의 자서전』은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춘원의 인생 시기 면에서 보자면 해방 이후에 쓴 『나』 전체와 『나의 고백』의 전반부 내용을 합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구적 성격을 배제하고 있는 『나의 고백』을 일단 제쳐 놓고 『나』와 대비해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나』와 마찬가지로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허구적 성격은 『나』보다도 강하다. 이 역시 위 단락에서 언급한 둘째 항목의 상징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는 도산, 그리고 단재라는 그가 경외하는 인물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연관된 이야기를 한다는 부담감 또한 작용했을 것이다. 둘째는, 뒤에 볼 터이지만 『나』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나’의 추억담이 비극적이면서도 매우 애뜻하게 서사·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이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을뿐더러 부모에 대해,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멸의 기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술한다는 점이다.

어머니는 장손부요 이 집 주인이언마는 나이 젊고 또 원래 칠칠치도 못할뿐더러 그렇게 예절 숭상하지 못하는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수 여투는 것을 모두 돌며 룯집 숙모에게 맡기고 내 누이동생인 젓먹이를 안고 오락가락하기만 하였다. 나는 내 어머니가 그렇게 칠칠치 못한 것이 애가 키이고 가여웠다. 왜 아버지는 저렇게 마르고 두 볼 이 움썹 들어가서 궁상이 끼고 어머니는 저렇게 못났을까 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오랫동안 나를 괴롭게 하였다.¹⁵⁾

그것은 아버지가 혹은 농담으로 혹은 싸울 때에 어머니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 씀하는 것을 들은 때문인 것 같이 생각된다. 실상 아버지 나이보다 이십 년이나 아래

15) 이광수, 『그의 자서전』(5판), 조광사, 1941.3.25, 15면(초판은 1937.6.5.).

요 게다가 칠칠하다고는 할 수 없는 어머니를 항상 경멸하고 있는 것이 어린 내 눈에 분명히 보였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는 대수롭지 아니한 존재로 알고 있었다. 기억은 없으나 어머니의 훈계나 꾸지람은 내가 껏등으로 들었을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이 날에 껏먹이를 업고 아버지의 뒤를 따른다고 그 시체를 타고 넘는 모양을 보고는 나는 어머니가 무서운 사람 같았고 또 끔찍이 소중한 존재도 되었다.¹⁶⁾

셋째 특징은, 『나』가 스무 살 시절 이야기에서 그쳤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 『그의 자서전』의 내용에 있는 것인데, 특히 오산학교 교사 생활을 접고 중국과 러시아를 방랑하며 활동하던 시절, 그리고 허영숙과의 애정의 도피 행각을 벌이던 북경 시절의 이야기를 허구와 사실을 혼합하여 그리고 있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이 특징이란 춘원이 떠돌이집의 선배 독립운동 지사인 단재 신체호를 작중에서 ‘T’¹⁷⁾로 지칭하면서 각별하게 의식하며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춘원이 한마디로 “의리 절개로 굳은 사람”¹⁸⁾이라고 생각하는 단재를 언급하는 것은, 도산과도 다른 인품의 단재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 언급을 통해 드러내면서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T(단재)가 자신에게 “젊은 여자 둘을 데리고 와서 어디 숨어 산다는 등, 일본 공사관에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는 등, 또 M신문에 글을 쓰는”¹⁹⁾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 하고, “나는 T가 내게 호의를 가진 것을 믿고 또 T가 참된 사람인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 그의 이러한 말이 내 마음을 서늘케 하였다”²⁰⁾는 말로써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일면 표현하고 있지만, 독립운동가들이 “R씨 파니 P씨 파니 A씨 파니 하고” “싸우는데 유일한 무기는 친일파라는 것”²¹⁾이라는 말을 단재의 입을 빌려 함으로써 그 양심의 가책을 덜고

16) 위의 책, 64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시체를 타고 넘는 이 장면은 『나』에서도 나오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나’의 느낌은 사뭇 다르다. 뒤에 인용할 것이다.

17) 공교롭게도 도산과 단재를 지칭하는 약어가 모두 ‘T’인데, 춘원은 이 공통점도 의식했을 수 있다.

18) 위의 책, 178면.

19) 위의 책, 354면.

20) 같은 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뒤의 장면에서 ‘나는 “적의 앞에서는 고양이 본 쥐와 같고 제 편을 먹을 때에는 토끼 본 호랑이와 같은 조선 사람의 마음”이라는 일종의 ‘민족성 환멸’의 말을 더함으로써 ‘나는 ‘단재의 말’에 의해 더한층 힘을 얻고자 한다.

춘원이 단재를 『그의 자서전』이라는 소설 속에서가 아니라 실존 인물로 언급한 글이 『그의 자서전』 이전에 있었다. 그것은 「탈출 도중의 단재 인상」(『조광』, 1936.4.)이라는 짧은 글로 이 글에서도 단재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우리가 남은 것이 무엇이요? 대의(大義)밖에 있소? 절개밖에 있소?”

하고 절개 의식의 마멸은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극론(極論)하였다.(……)

그러나, 나의 단재에 대한 흥미는 거금 이십육 년 전 오산교(五山校)에서 서로 만났을 때에 시작된 대로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었다.

단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언제나 한번 만나기만 하면 정견(政見)으로서 나온 일시의 소격쯤은 환연(渙然)히 풀 날도 있으리라 하였더니²²⁾, 다시는 만나지 못할 데로 그는 가버리고 말았다. 워낙 불행한 지사로서 최후의 수년을 이역 옥중에

21) 위의 책, 355~356면.

22) 이 대목은 상해 임시정부 활동 시절에 급진적, 무력적, 혁명적 독립운동의 노선을 주장한 단재가 『독립신문』의 ‘실력양성론-준비론’을 비판하기 위해 『신대한』을 창간하여 쓴 글에 대해 이광수 자신이 『독립신문』에 비판의 글을 쓰면서 두 사람 간에 오고 간 논쟁, 그리고 이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사정을 언급하는 것이다. ‘사부(師父)’인 도산은 당연히 자신과 같은 ‘실력양성론-준비론’의 노선을 취하고 있었던 반면에, 비록 그 못지않게 마음 깊이 존경하지만 자신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노선을 걷는 단재를 향해 이광수는 아마 스스로도 매우 과하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짐작이 갈 만한 비판을 한 바가 있었다. 예컨대 당시 단재의 논쟁 태도를 나라를 말아먹은 “이조 당년의 노소론(老少論)의 당쟁하던 버릇”(『절대독립』, 『독립신문』, 1919.12.2, 1면.)이라고 매도한 것이 그런 것이다. 자신이 단재를 이런 식으로 극심하게 매도한 것을 이광수는 위의 인용문 대목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던 것처럼 치부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재가 그에게 얼마나 경외로운 인물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단재가 춘원에게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함. 김주현, 「이광수와 신채호의 만남, 그리고 영향」, 『한국현대문학연구』 48, 한국현대문학회, 2016.; 「상해 시절 이광수의 작품 발굴과 그 의미」, 『어문학』 132, 한국어문학회, 2016.

서 병으로 신음하다가 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²³⁾

이 글은 단재가 1936년 2월 21일에 중국 여순(旅順)의 만주국 감옥에서 옥사한 직후에 춘원이 쓴 것이다.²⁴⁾ 단재에 대한 변함없는 흠모의 고백은 물론 춘원의 진정이겠지만²⁵⁾, 단재의 비극적이고도 비참한 죽음이 춘원에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 데에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대구에서」 발표 이래로 그가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그에게 후견인과 다름없는 역할을 해 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언론 담당 고문이자, 전후에 전범으로 처벌 받은 일본의 대표적 국수주의자 도쿠토미 소호의 오른팔이며,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사장을 역임한 아베 요시아에(阿部充家)가 죽은 1936년 정월 초에, 아베의 죽음을 모르고 간 것이기는 했으나 그가 아베의 집에서 문상을 했다는 사실이다.²⁶⁾

요컨대 도산을 ‘자기대상’으로 삼는 춘원의 삶과 문학의 나르시시즘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춘원은 단재(의 죽음)라는 피할 수 없는 ‘양심의 잠’을 어떤 식으로건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고²⁷⁾, 이것이 『그의 자서전』 쓰기에서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과제였다. 그런데 이 과제의 수행이 더욱 중요한

23) 이광수, 『이광수 전집』 8, 삼중당, 1972, 517면.

24) 춘원의 생일은 양력으로 2월 22일이어서 춘원은 단재의 죽음에 더 특별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25) 『그의 자서전』에서 (작중 이름으로는 ‘남궁수경’과 ‘남궁석인’)나가 쓴 소설 제목도 『진정(眞情)』이다.

26) 김윤식, “춘원의 친일은 ‘아비 찾기’의 과정-손병희, 안창호 거쳐 소호로 轉移”, 〈시사저널〉, 1992.2.6.,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13099>〉, (2018.9.26.).

이광수, 「無佛 翁의 추억」, 김윤식 편역, 『이광수의 일여 창작 및 산문선』, 역락, 2007 참조.

27) 『춘원 이광수』의 저자는 “해외의 독립투사들이 춘원을 비난했던들 그는 머리를 수그리고 감수 하였을 것”(박계주·곽학송, 『춘원 이광수』, 삼중당, 1962, 315면)이라고 확인했는데, 위의 『그의 자서전』에 나타난 춘원의 태도를 보자면 “머리를 수그리고 감수”하는 양상에는 단서가 붙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춘원이 경외하는 그 ‘해외의 독립투사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도산과 더불어 단재였다. 춘원은 『나의 고백』에서도 단재를 향해 아주 짧지만 강렬하고도 더없이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한다.

것은, 앞서 말했듯이 당사가 도산과 동우회(=흥사단), 그리고 물론 춘원 자신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춘원의 삶과 글쓰기에서, 이 위기 상황과도 비교되지 않는 진짜 위기의 시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도산이 서거한 1938년 3월 10일 이후이다. 이 시기에는 그의 삶과 문학의 나르시시즘도 질적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 변화에서도 일제 말과 해방 이후의 양상에 연속성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도산의 서거 이후, 즉 춘원에게 ‘자기대상’이라는 거울이자 자기 동일시의 대상이기도 했던 도산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춘원의 삶과 글쓰기는 한마디로 말해 스스로 ‘자기대상’의 거울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법화경』으로 상징되는 절대적·허무적 종교 관념으로 형성되지만, 그것과 현실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엄연한 정치 이념으로서, 해방 이전에는 ‘민족보존론’으로 표방된 친일 이념으로, 그리고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해방 이후에는 ‘사랑의 정신’을 앞세운 반공 이념으로 나타난다. 도산이라는 거울을 잃은 춘원은 이렇게 종교 관념과 정치 이념을 통해 스스로 거울을 만들으로써 ‘나=민족의 지도자’라는 나르시시즘을 계속 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춘원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그 스스로 대단한 자부심을 내비치기도 한 사소설 「무명」(『문장』, 1939.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이 매우 문제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춘원이 박정호에게 구술한 뒤에 한 글자도 고치지 않은 채, 이태준을 주간으로 하여 새로 설립된 『문장』 창간호에 실리게 된 경위, 좌우를 막론한 조선 평단은 물론이고 김사량의 일역을 매개로 일본 문단에서도 인정을 받아 제1회 ‘조선예술상’을 받게 된 과정을 마치 자기 일처럼 자랑하는 박계주의 소개²⁸⁾나 “「무명」에서 잡념들의 심리 묘사는 과연 깊이 통찰’되었고 “감옥 속의 인간성을 「무명」만큼 탁월하게 통찰하여 그린 작품은 우리 근대문학 속에서는 여태껏 없었다”는 “이 점만으로 보면 「무명」은 뛰어난 작품”²⁹⁾

28) 박계주·곽학송, 앞의 책, 514~517면 참조.

29)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3, 한길사, 1986, 949면.

이라는 평가가 대변하듯이, 우선 이 작품은 춘원 문학 전체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병감에서 매일 작은 욕망과 싸우면서 죽어 가는 죄수들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으로서, 이미 민족운동의 한계를 통감한 이광수에게 불교적인 체념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일종의 전향소설”³⁰⁾이라는 전혀 다른 맥락의 평가도 주목해야 한다.

「무명」은 춘원 문학의 나르시시즘의 성격 변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는데, 그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자기대상’의 거울을 『법화경』의 종교 관념에서 찾는 대표적 작품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화경』이 그의 나르시시즘을 뒷받침하는 데 적절할 수 있었던 근거 또한 이 경전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 경전에 내재한 ‘배타적이고 투쟁적’이며 ‘자기희생’을 강조하는 성격이 춘원의 나르시시즘의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춘원이 생애를 두고 그토록 민족을 위해 온몸을 바쳤다고 주장한 것, 심지어 친일조차도 민족을 위해서했다는 극단적인 자기희생의 강박관념은 그가 법화경 행자로 자처한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³¹⁾는 판단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화경』의 사상을 동원하면서 정작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무명(無明)’의 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조선 민중의 모습으로 보인다. “마치 윤은 먹고, 민을 못 견디게 굴고, 풍질하고, 자고, 이 네 가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았다.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병 타령과 공범에 대한 원망이었다.”³²⁾라든가, “정이 맹서하는 것을 듣고 나는 머리가 쭈뼛함을 깨달았다. 어쩌면 그렇게 영절스럽게, 곁에다가 증인을 둘씩이나 두고도 벼락 맞을 맹세까지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의 마음이란 헤어릴 수 없이 무서운 것이라고 깊이깊이 느껴졌다.”³³⁾라는 문장 속에는 「민족개조론」을 비롯한 일련의 ‘개조론’에

30) 하타노 세츠코, 최주한 역,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푸른역사, 2016, 234면.

31) 김윤식, 앞의 책, 915면.

32) 이광수, 「무명」, 『문장』, 1939.1, 7면.

33) 위의 책, 28면.

서 익히 보았던바 조선 민중의 고질적 민족성을 바라보는 춘원의 사고방식이 더 진한 농도로 배어 있다. 역설적이게도 감옥이라는 「무명」의 장소는 춘원이 자신의 생애에서 조선의 일반 민중을 가장 밀착해서 만날 수 있었던 공간이었지만, 그에게 이 경험은 그들에 대한 환멸을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될 뿐이었다. 춘원 문학에 일관된 나르시시즘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자전적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민중들의 비루한 모습 역시 그 나르시시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구실을 한다.

수필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할 만큼 춘원 자신의 사적(私的) 생활 이야기가 중심인 「육장기」(『문장』, 1939.9.)에도 예의 부정적 민중상이 마찬가지로 나타나지만, 이에 반해 그와 한동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이들도 있는데 “그네들은 모두 **나를 위해 주고 기쁘게 하여**”³⁴⁾(강조는 인용자) 주는 사람들이다.³⁵⁾ 다시 말해, 수필 또는 사소설에 가까운 이 소품에서도 이렇게 ‘나’를 중심에 놓는 사고방식에서 나르시시즘의 편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의 문제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포장된 무차별적 현실 긍정을 ‘계몽’의 메시지로 내놓는다는 점이다. 춘원은 “사바세계란 말이 본디 ‘참는 세계라는 뜻’이어서 “잘 참는 사람이 오직 행복된 사람”³⁶⁾이라고 말한다. 본래 이 ‘참음’이란 그가 “조선 사람 중에 두

34) 이광수, 「육장기」, 『문장』, 1939.9, 33면.

35) 춘원이 홍지동에 집을 짓고 그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산 기간 역시 그가 조선의 일반 민중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그가 그들을 이해하는 수준은 「육장기」 이상이 되지 못했다. 춘원이 「육장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민중 인물들은, 예컨대 상허 이태준이 성북동 시절의 한 일화를 잔잔한 소품으로 형상화한 「달밤」(『중앙』, 1933.11.)에 등장하는 매우 인상적인 천덕꾸러기 ‘황수간’을 대조해서 연상케 한다. 이 황수간이라는, 지극히 털 떨어졌으나 그 바탕 심성은 선량하기 짝이 없는 이 인물을 생생히 살려 내는 힘은, 물론 상허의 문장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밑바닥 민중 인물을 바라보는 그의 깊고 애뜻한 애정이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지껄이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무리 오래 지껄이고 나도 웃음바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뜨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 주었다.”

이태준, 임형택·민충환 편, 『해방 전후』, 창작과비평사, 1994, 83면.

사람을 숭배”³⁷⁾하는 가운데 이순신과 더불어 그 또 한 사람인 도산이라는 인물을 “참과 ‘참음’의 사람”³⁸⁾으로 보면서 “그는 일찍이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에 대하여 성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싫은 생각을 내는 것을 본 사람이 없”³⁹⁾다는 것, 즉 도산의 고매한 인격을 말하기 위해 썼던 말인데, (일제가 중일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 있는) 「육장기」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 말을 쓰는 것이다. 즉, “나는 이 세상이 지극히 공평하다고”⁴⁰⁾ 믿고, 심지어는 매우 자연스럽게 “한 송이 꽃을 멀리 전장에서 죽은 병사들의 혼령께 바치노라”⁴¹⁾고 말하기도 한다.

「무명」과 「육장기」에서 『법화경』이라는 종교적 배경을 괄호 속에 넣고 보면, 이 두 글 이래로⁴²⁾ 춘원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쓴 수많은 본격적 친일 글들은 이 두 글에 담긴 그 변화된 나르시시즘의 여러 가지 변주로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선 민족은 자신의 친일에 의해서조차 자신의 ‘지도’를 따라야 할 여전한 계몽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단, 여기서 여타 인물의 친일 협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적극적 친일 협력 결정에 중국 국민당의 최후의 보루로 간주되었던 무한 삼진의 함락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동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⁴³⁾

36) 이광수, 「육장기」, 『문장』, 1939.9, 14면.

37) 이광수, 「이순신과 안도산」, 『삼천리』, 1931.8, 32면.

38) 이광수, 「도산의 인격과 무대」, 『삼천리』, 1935.12, 54면.

39) 같은 면.

40) 이광수, 「육장기」, 『문장』, 1939.9, 27면.

41) 위의 책, 30-31면.

42) 춘원은 이 두 글을 발표하기 이전인 1938년 11월 3일에 동우회 회원을 모아 전향 집회를 열고 공식적인 전향 선언서를 발표했다.

43) 이를 비롯하여, ‘내선일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일제 말 문화인들의 협력과 저항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문화주의적 동화형’의 대표적 인물로 이광수를 보는 연구로서 다음을 참조할 것.

김재용, 『풍화와 기억 - 일제 말 친일 협력 문학의 재해석』, 소명출판, 2016.

3. 해방 이후 자전적 글쓰기의 착잡한 ‘나’의 나르시시즘

일제 강점기에 쓴 춘원의 ‘자서전’이 『그의 자서전』인 데 비해 해방 이후의 것은 『나』(『소년편』, 생활사, 1947.12. 『스무 살 고개』, 생활사, 1948.10.)와 『나의 고백』(춘추사, 1948.12.1.)이라는 사실 역시, 그의 글쓰기의 자전적 성격 또는 자전적 글쓰기에 담긴 나르시시즘의 변화 양상과 그 배경이라는 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나』와 『나의 고백』을 쓸 때에는, 도산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산을 대신하는 (『법화경』으로부터 춘원이 만들어 낸) 종교적 관념의 ‘거울’로써 춘원 스스로 나르시시즘을 지속하여 ‘민족을 위한 친일 협력을 한 이후여서, 이미 ‘그’라는 3인칭의 허구 속으로 숨을 방도 마저 없었다. 그러나 『나』와 『나의 고백』을 쓸 당시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춘원에게 도산은 절대적 의지의 대상이 되었음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비록 홍사단의 의뢰에 의한 것이었으나, 춘원은 1947년 초부터 5월까지 『도산 안창호』를 집필하여 출간한 뒤에야 『나』와 『나의 고백』을 썼고, 그 중간에 『돌베개』(생활사, 1948.6.)를 출간했다.

『나』의 서문 격인 “『나』를 쓰는 말”에서 춘원은 이 책을 쓰는 의도를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세상에 빛을 주고 향기를 보내자는 것이 아니다(어찌 감히 그것을 바라랴). 마치 이 추악한 몸을 세상에서 없이 하기 위하여 화장터 아궁에 들어가서 고약한 냄새를 더 지독히 피우는 것과 같다. 한때 냄새가 한꺼번에 나고는 다시 아니 나는 것과 이 이야기로 내 더러움을, 아니 더러운 나를 살라 버리자는 뜻이다. 그러므로 혹이나 이 글을 읽으시는 이는 코를 싸고 읽을 것이다. 눈살을 찌푸리며 읽을 것이다.⁴⁴⁾

44) 이광수, 『나-소년편』(재판), 생활사, 1948.7, 7면.

이 말에서는 춘원의 일관된 나르시시즘이 낚새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나의 추악함을 극히 솔직하게 까발려서 스스로 정죄(淨罪)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자서전』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작가적 진실과는 상당한 간극”⁴⁵⁾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분석에서도 밝혀졌듯이, 작가의 언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⁴⁶⁾ 예컨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와 실단과의 애절하고 안타까운 비극적 사랑 이야기'⁴⁷⁾가 춘원 자신의 “욕망”의 추구와 그 ‘자책감’에 대한 ‘참회’의 이야기”⁴⁸⁾로 읽히지는 않는다. 실단이 우연히 다시 만난 ‘나’에게, ‘나’를 두고 원치 않은 사람에게 시집을 간 자신의 행위를 두고 ‘훼손’과 ‘배반’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실단의 회오는 이광수 자신의 공공연한 전향과 그에 대한 ‘자책감’이 투사된 것”⁴⁹⁾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나와 실단과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훼손’을 둘러싼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히려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이름다운 회오’에 갇힌 ‘나’를 상상하면서 독자도 스스로를 그러한 ‘나나 실단과 동일시

45) 방민호, 「이광수의 자전적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어문학논총』 2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2, 122면.

46) 『나』에서 ‘작가적 진실’을 훼손하는 허구성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부산물로 지적할 수 있는 상징적 사실이 바로 작가 스스로 주인공인 ‘나’의 작중 이름을 헛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나소년편』에서는 ‘나’의 이름이 ‘박도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나의 아버지가 “새 봉자 일호 박도경이.”(『나소년편』(재판), 생활사, 1948.7, 48면.)라고 ‘나’의 이름을 불러 주는 장면에서 딱 한 번 나온다. 또한 “박 아모라는 아버지의 이름”(삼중당 전집과 최종고 편 『나의 일생』에서는 ‘박 아모’를 ‘박아 보’와 ‘박아보’ 등으로 잘못 쓰고 있음.)이라는 구절도 나오기 때문에 『나소년편』에서 ‘나’의 성이 박 씨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나소년편』의 뒷부분에서 “김 선생이 우리 일가가 되시면 어떻게나 든든한 의지가 되겠어요, 우리 남매에게도.”라는 문의 누님의 발언이 한 차례 나온 뒤에 『나스무 살 고개』에서는 ‘박도경’이 ‘김도경’으로 완전히 바뀐다. 연구자들도 이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여 앞서 언급한 각각의 논문에서 강현국은 ‘박도경’을, 그리고 방민호와 서은혜 및 한승옥(『이광수 문학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은 ‘김도경’을 ‘나’의 이름으로 소개한다.

47) 춘원의 이 실제 일화는 『나』를 쓰기 오래 전에 다른 지면을 통해 그가 꽤나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이광수, 「인생의 향기(4)-연분」, 『영대』, 1924.12 참조.

48) 최주한, 『제국 권력예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192면.

49) 위의 책, 191면.

하도록 만드는 것이 작가의 의도였을 수는 있다.

오히려 그가 평생을 지녀 온 나르시시즘은 뚜렷이 의연하다. “나는 나대로, 내가 생긴 대로 가자는 것이었다”⁵⁰⁾는 태도에도 분명히 나타나듯이, ‘나’는 남들이 뭐라 하건 자기 특유의 나르시시즘을 적어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 나르시시즘을 뒷받침하는 것은, “민중이란 추세하는 동물이었다. 먹을 것 있고 세력 있는 데로 따라가는 것이 민중의 본능이었다.”⁵¹⁾는 예의 일관된 부정적 민중 관이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나는 벌써 오십이 넘어 육십 고개도 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누가 보든지 신통치 아니한 인물이요, 앞으로도 별로 신기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아니하건마는, 그래도 나 자신은 아직도 옛날의 신념을 은근히 품고 있다. 나는 큰사람이라고. 나는 하늘이 아는 사람이라고. 나로 하여서 우리나라도 살고 이 인류도 바른 길을 걷게 되느니라. 후세 사람들이 내가 머물던 땅을 베나레스나, 나사렛이나 메카나, 곡부 모양으로 거룩한 순례의 처소를 만들고 내가 걸던 길을 더듬어 내 발자국에 입을 맞추리라고. 사람만이 아니라 귀신도, 짐승도, 벌레도, 산도, 물도, 바위도 다 그러하리라고.

나는 누구를 보고 이런 말을 해 본 적은 없다. 만일 한다 하면 듣는 이는 필시 고개를 돌리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를 보고도 이런 말을 한 일이 없거니와, 이런 생각은 하루도 버린 적은 없었다. 스무 살의 시골 젊은 교사이던 시절이 나 지금 쉰 터럭이 나부끼는 이때나 사람은 변하지 아니하는가 보다.⁵²⁾

한편, 『나의 고백』을 써야 했기 때문에 『나』가 ‘스무 살 고개’에서 그쳐 버렸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춘원이 『나』에서도, 그리고 『나의 고백』에서도, 『그의 자서

50) 이광수, 『나-스무 살 고개』, 생활사, 1948.10.15, 138면.

51) 위의 책, 186면.

52) 위의 책, 103~104면.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약 십 년 간의 동아일보·조선일보 재직 시절을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눈길이 간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시절이, 선천적 약질과 몇 차례 큰 수술을 할 정도의 병환 때문에 고생을 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춘원의 전 생애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가장 안정되고 여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⁵³⁾ 이렇게 안정되고 여유 있게 생활하던 시절은 ‘그의 자서전’에서건 ‘나의 자서전’에서건 춘원의 나르시시즘을 충족할 만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소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을 것이고, 오히려 밝히고 싶지 않은 생활 이야기는 많았을 것이다.

『나』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대목은, 앞서 『그의 자서전』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서 인용한 『그의 자서전』의 해당 대목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나의 어머니 묘사’다.

53) 춘원의 동아일보 입사가 그의 생활에 얼마나 큰 ‘안정과 여유’를 가져다주었는지는 아래 연구서의 설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광수는 1922년 총독부의 주선으로 수당만도 한 달에 300엔의 엄청난 돈을 받고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들어갔다(1922년 가을쯤의 300엔이라는 돈의 가치를 설명한다면 대충 이렇다. 찬거리로 5전을 내면 푸줏간에서 150g 정도의 작은 쇠고기 덩이를 주었다 니가 600g 1근에 20전 정도, 지금의 쇠고기 값을 600g에 3천 원으로 잡으면 300엔=45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한편 1929년쯤 보통 기자 봉급이 30엔=위의 계산대로 하면 45만원, 좀 나은 데가 50엔=75만원, 파격적인 대우의 부장급이 100엔=150만원이었다 니가 옛날에는 없던 지금의 보너스 제도를 참작하면 300엔=45만원이라는 도의 가치 대비는 거의 걸맞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4, 394~395면.

김원모는 위와 같은 액수가 과장된 것이고 춘원이 총독부 주선으로 동아일보에 입사한 것도 아니며 실제로는 평기자 월급의 두 배 수준인 150원을 받았다는 반박 자료를 제시한다.(김원모, 『영마루의 구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363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춘원이 총독부 주선으로 동아일보에 입사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1922년은 그의 생애에 있어 가장 안정되고, 자신에 차고, 당당한 시기였다”(김윤식, 앞의 책, 763면.)는 점이다. 150원이라는 액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30 평생을 사는 동안 처음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결코 적지 않은 보수를 받게 된 셈이다. 이 밖에도 부지런히 글을 써서 벌어들인 원고료 덕분에 그는 일본에 다시 유학 가 있는 아내 허영숙에게 보란 듯이 송금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이미 이해 2월에는 한편으로는 도산의 지령 아래, 다른 한편으로는 아베 미즈이에를 통해 총독부의 보장 아래 합법적으로 흥사단의 국내판인 수양동맹회를 자택에서 조직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에 차 있었다.

어머니는 젖먹이 누이를 업고 일어나서 떠를 매더니, 아버지의 시체 가까이 다가 서며, 산 사람에게 말하듯,

“나히구 언년이히구 다려가시우. 그리구 도경이히구 간난이히구 오래오래 잘 살 게 해 주시우.”

하고 한 발을 번쩍 들어서 아버지의 시체의 허리를 타고 넘었다. 그러고는 크고 어려운 일을 치른 듯이 한숨을 쉬고 빙그레 웃으면서 날더러,

“이렇게 하면 다려간대.”

하였다. 이때에는 어머니의 눈은 예사롭게 되어서 무섭지도 이상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받은 내 정신의 감동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그 말대로 소원대로 된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 이에서 더한 비창하고 비장한 일이 없을 것 같았다.⁵⁴⁾

『그의 자서전』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나』에서는 ‘나’를 위해 막내 여동생과 함께 자신을 희생하는 비극적이면서도 지극히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나’의 또 다른 기억의 장면으로 재구성해 낸다. 『나』에서는 ‘나’의 아버지의 모습 또한 『그의 자서전』과 대조적이어서, 부정적인 면보다 별 말 없이도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변화는, 도산은 물론 종교적 허무주의에도 완전히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어린 시절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 냈으로써, 어린 시절에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자기대상(=거울)’의 ‘공감’을 상상적으로 느끼면서 비로소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누려 보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책에 넣은 글은 병술년(1946년·인용자) 구월부터 금년 즉 무자년(1948년·인용자) 이월까지 사이에⁵⁵⁾ 쓴 것들이라는 ‘서문’의 준원의 말처럼 『돌베개』는 약 1년 반 동안 쓴 글을 모아 놓은 책이다. 그런데 이 1년 반의 기간은 한국 근현대사의

54) 이광수, 『나 소년편』(재판), 생활사, 1948.7, 144면.

55) 이광수, 『돌베개』, 삼중당, 1952, 7면.

다른 어떤 기간보다도 격변의 시기였던 만큼, 특히 봉선사에 머문 기간에 쓴 ‘산에 서’ 및 사릉 집에서 살면서 쓴 ‘돌베개와 ‘소가 웃는다’에 담긴 글들과, 서울 집으로 돌아와서 맨 나중에 쓴 ‘사랑의 길’의 세 편의 글 「사랑의 길」·「인생의 기쁨」·「내 나라」 사이에는 같은 책에 담긴 것이 기이해 보일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이 세 편의 글에서는, 친일파의 거두로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봉선사로 피신해 있던 때, 그리고 자바뿔소까지 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내던 때의 신변의 잔잔한 이야기들을 하며 내면으로 침잠하는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춘원 특유의 ‘민족의 지도자 나르시시즘’을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여실히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세 편의 글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내 나라」이다. “우리 민족이 맡은 구실이 무엇인가”⁵⁶⁾라는 이 글의 첫 문장에서 이미 그의 ‘민족의 지도자 나르시시즘’이 나타난다. 춘원은 이 글에서, 일본 유학 시절에 줄기차게 쓴 글에서 극렬히 주장한 이래로 철저히 타매의 대상으로 삼은 조선의 유교 문화마저 그 긍정성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면서 민족문화의 전통에 자부심을 가질 것을 웅변한다. 이러한 논리 가운데 압권인 것은 다음 대목이다.

지난번 일본이 그처럼 조직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과 문화를 깨뜨리고 제 물을 들이려던 사십 년의 노력도 이제 보면 연꽃과 연잎에 부은 물과 같아서 터럭 끝만치도 젖은 구석이 없지 아니하냐.⁵⁷⁾

그런데 그가 이 글의 결론으로서 정작 역설하고자 하는 바는, 당시 미군정 정치 고문 L. 버치 중위의 지원 하에 김규식·여운형을 각각 대표로 하여 진행되고 있었던 좌우합작위원회의 부당성이었다.⁵⁸⁾ 그는 「사랑의 길」에서 “이제 우리는

56) 위의 책, 203면.

57) 위의 책, 215면.

58) 위의 책, 225면 참조.

춘원의 이러한 정치적 입장이 당시 정세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편벽된 것이라는 점은, 최근 ‘버치 보고서’를 발굴하여 소개한 박태균의 설명에 의해 잘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새 나라를 세우는 길에 있거니와 우리 새 나라의 목표는 더구나 ‘사랑의 나라’에 있을 것⁵⁹⁾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내 나라」에 나타난 그의 정치적 입장을 보면 이러한 ‘사랑의 나라’의 구현이 역설적이게도 무엇보다도 ‘반공 이념’을 기반으로 가능하게 된다.

춘원이 온갖 논리적 파탄을 무릅쓰고 전혀 적절치 않은 과장법과 비유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친일에 관해 적극적·공격적 변명을 하는 『나의 고백』의 내용 자체를 여기서 상세하게 재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주목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돌베개』의 세 편의 글과 마찬가지로 성격의 ‘민족의 지도자 나르시시즘’을 품을 수 있게 하는 『나의 고백』의 ‘내면 동력’이다. 『나의 고백』에서도 춘원은, 과거 상해에서 도산의 만류를 무릅쓰고 귀국하던 당시에 관해 상세히 서술하면서 도산과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이 못지않게 단재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애정을 매우 각별히 언급한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그의 몸은 어디를 두드려도 ‘민족’ 소리가 나고 어디를 찔러도 ‘애국’의 피가 흐를 것이라고 생각”⁶⁰⁾한 단재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애정을 강조하는 것이 자신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를 연애하다시피 사랑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역시 연애하는 사람의 심리였다.⁶¹⁾

작가 펄벅이 “동방의 가장 빛나는 예지”라고 격찬했다는 재미 소설가 강용홀(“강용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강용홀&ridx=0&tot=2>>), (2018.9.26.))의 제안을 받아 미군정에서 작성한 ‘미군정에 대한 생각 있는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비판’이라는 문서에서는, “백남은 같은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김성수와 이광수 같은 사람은 모든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대목에 나타나듯 독립운동가는 탄압받고 친일파 출신은 혜택을 받는 당시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박태균의 버치 보고서]⑧-강용홀을 아시나요”, 『경향신문』, 2018.5.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02154005&code=210100>, (2018.9.26.).

59) 이광수, 『돌베개』, 삼중당, 1952, 187면.

60) 이광수, 『나의 고백』(재판), 춘추사, 1948.12.25, 76면.

그럼에도, 도산도 단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제 강점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 급박하게 전개되는 1948년이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이 책에서 그 '내면 동력'은 무엇보다도 역시 자신이 주장하는바 '사랑의 나라'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반공 이념'이었다고 생각된다. 『돌베개』의 글들과 달리 『나의 고백』에서는 춘원이 지닌 반공의 정치적 입장이 직접적으로 표명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이 책에서 강력하게 내보이는 일종의 자신감의 배경은 이 책이 출간되던 무렵의 정세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이 책이 출간되던 해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둘러싼 대립 가운데 '제주4·3'과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진압되면서 반공주의를 핵심으로 한 이승만 정권의 철권통치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상징적인 사실은 『나의 고백』 초판이 발간되던 날(1948.12.1)이 바로 반공주의의 근간이 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 춘원의 자전적 글쓰기에서 그 이전과는 다른 배경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민족의 지도자 나르시시즘'은 격변하는 시류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 몇 가지

춘원 이광수와 도산 안창호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 시기 춘원 이광수 문학의 나르시시즘과 자전적 글쓰기의 연관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본 이전 논문의 작업에 이어서, 본고에서는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도산의 죽음을 전후로 하여 이광수의 자전적 글쓰기에서 나르시시즘이 어떤 변화와 연속성을 보이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본고에서 살핀 시기에도 이광수의 '민족의 지도자

61) 같은 면.

나르시시즘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도산의 죽음 이전과 이후에, 그리고 도산이 죽고 나서 이광수가 친일에 앞장서고 해방을 맞이한 뒤에 자전적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은 연속성과 함께 중요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먼저 도산의 죽음 이전에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광수는 도산의 권위를 통해 그 나르시시즘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데, 투옥되었던 도산이 출옥했지만 악화된 건강과 여전한 부자유 때문에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광수는 소설의 허구 형식을 빌려서나마 자신이 살아 온 인생의 의미를 누구보다 도산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그의 자서전』을 썼다. 그러나 도산 서거 후, 즉 도산이라는 절대적 ‘자기대상’을 상실한 뒤에 이광수는 ‘민족보존론’으로 표방한 친일 이념(관념)을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뒷받침하는 ‘자기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자전적 작품이 「무명」과 「육장기」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의 격심하게 변화한 정국 하에서 이광수는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뒷받침하는 ‘자기대상’의 관념을 반공 이념에서 찾는다. 『나』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스무 살 시절까지로 이야기의 범위를 국한함으로써 정치적 발언의 부담을 애초부터 지지 않고자 했지만, 『돌베개』의 몇몇 글과 『나의 고백』 같은 자전적 글에서 이광수는 반공 이념이라는 ‘자기대상’을 통해, 자신이 평생 가져 온 ‘민족의 지도자 나르시시즘’을 여전히 강력하게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도산 못지않게 이광수의 삶과 (자전적)글쓰기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단재 신채호다. 그 영향은 이광수의 여러 글에서 발견되지만, 도산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단재의 죽음도 이광수의 자전적 글쓰기와 그 속에 담긴 그의 나르시시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의 자서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도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죽은 단재를 통해서도 그는 예의 나르시시즘으로 표현된바 자신의 삶의 행적의 정당성을 추인받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는 해방 이후의 격변하는 상황에서 쓴 『나의 고백』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필자는 본고의 문제의식을 춘원 이광수의 여타 작품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춘원의 글 가운데 자전적 글쓰기의 의도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 소설 작품에서도, 그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자전적 화소(話素)와 그러한 화소들의 구성 방식을 분석하면서 각 작품에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의 특징적 표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소설 작품에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살펴볼 때 역시, 그러한 특징을 낳게 한 내적외적 계기를 찾아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개벽』, 『동광』, 『문장』, 『백조』, 『삼천리』, 『영대』

이광수, 「인생의 향기(4)-연분」, 『영대』, 1924.12.

_____, 「이순신과 안 도산」, 『삼천리』, 1931.8.

_____, 『인생의 향기』, 홍지출판사, 1936.

_____, 「무명」, 『문장』, 1939.1.

_____, 「육장기」, 『문장』, 1939.9.

_____, 『그의 자서전』(5판), 조광사, 1941.

_____, 『돌베개』, 삼중당, 1952.(1948년 6월 생활사 간행본의 재간행본)

_____, 『나-소년편』(재판), 생활사, 1948.7.5.

_____, 『나-스무 살 고개』, 생활사, 1948.10.15.

_____, 『나의 고백』(재판), 춘추사, 1948.12.25.

_____, 박종화 외 편, 『이광수 전집』 1-10, 삼중당, 1972.

_____, 김원모 · 이경훈 편역, 『동포에 고함』, 철학과현실사, 1997.

_____, 김윤식 편역, 『이광수의 일어 창작 및 산문선』, 역락, 2007.

_____, 최종고 편, 『나의 일생』, 푸른사상, 2014.

2. 단행본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4.

김원모, 『영마루의 구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3, 한길사, 1986.

김재용, 『풍화와 기억- 일제 말 친일 협력 문학의 재해석』, 소명출판, 2016.

노양환, 『춘원 이광수 평전』(『이광수 전집 별권』), 삼중당, 1974.

박계주 · 곽학송, 『춘원 이광수』, 삼중당, 1962.

이정화, 『아버님 춘원』, 문선사, 1955.

_____, 『그리운 아버지 춘원』, 우신사, 1993.

이태준, 임형택·민충환 편, 『해방 전후』, 창작과비평사, 1994.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주요한, 『안도산 전서』, 샘터사, 1979.

최주환,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한승옥, 『이광수 문학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김산·님 웨일즈, 조우화 역, 『아리랑』, 동녘, 2002.

리처드 체식, 임말희 역, 『자기심리학과 나르시시즘의 치료』, 눈, 2014.

이운허(李耘虛) 역, 『법화경』, 동국대학교역경원, 2004.

제레미 홉즈, 유원기 역, 『나르시시즘』, 이제이북스, 2003.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홍혜경 역, 「리비도 이론과 나르시시즘」, 『정신분석강의(하)』, 열린책들, 1998.

_____, 윤희기 역, 「나르시시즘에 관한 서론」,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8.

크리스토퍼 리쉬, 최경도 역, 『나르시시즘의 문화』, 문학과지성사, 1989.

필립 르죈,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7.

하인즈 코헷, 이재훈 역, 『자기의 분석』,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하타노 세츠코, 최주환 역,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푸른역사, 2016.

3. 논문

강현국, 「기억의 연금술 - 이광수 문학의 자전적 성격 연구」, 『한국학연구』 3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김남천, 「춘원 이광수 씨를 말함 - 주로 정치와 문학과와의 관련에 기(基)하여」, 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2000(『조선중앙일보』, 1936.5.6.).

김주현, 「이광수와 신채호의 만남, 그리고 영향」, 『한국현대문학연구』 48, 한국현대문학회, 2016.

- _____, 「상해 시절 이광수의 작품 발굴과 그 의미」, 『어문학』 132, 한국어문학회, 2016.
- 노상래, 「李光洙의 自敍傳의 글쓰기에 대한 一考察-「星條旗」와 「그의 自敍傳」을 中心으로」, 『동아인문학』 16, 동아인문학회, 2009.
- 방민호, 「이광수의 자전적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어문학논총』 2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 서은혜, 「이광수 소설의 ‘암시된 저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7.
- 신성환, 「『무정』의 세 가지 연애담, 이성애와 나르시시즘『무정』 새롭게 다시 읽기의 한 방법」, 『한국언어문화』 62,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 정홍섭, 「춘원 문학의 나르시시즘과 자전적 성격 - 「농촌계발」과 「민족개조론」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 “[박태균의 버치 보고서]⑧-강용홀을 아시나요”, 〈경향신문〉, 2018.5.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02154005&code=210100), (2018.9.26.).

■ 영문초록

Lee Gwang-su's Autobiographical Writing as Creating the Mirror of Narcissism

Cheong, Hong-Seop

This treatise is the successive work of the previous one which confirmed that narcissism and autobiographical writing is one of the important essence of Lee Gwang-su's literature and it is a proper method for understanding Lee Gwang-su's literature to grasp the relation of the two element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m in the relation. Succeeding the previous work which scrutinized the rel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narcissism and the biographical writing of Lee Gwang-su's literature before and after Lee Gwang-su's meeting with Tosan, this treatise considered what changes and continuity of the narcissism Lee Gwang-su's autobiographical writing shows before and after Tosan's death. As with the previous period, in the period this treatise treated, we can find the 'narcissism of the leader of his people' in his autobiographical writing. But the narcissism demonstrates significant changes as well as continuity before and after Tosan's death and when the Liberation came after Lee Gwang-su had led pro-Japanese activities. The works which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er period and the latter one are *His Autobiography* and "Obscurity", "The Record of Selling the House", and *The Stone Pillow: My Confession*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person who cast a long shadow to Lee Gwang-su's life and (autobiographical) writing no less than Tosan is Tanjae Shin Chae-ho. His influence can be found in many works of Lee Gwang-su, but the fact that Tanjae's

death like that of Tosan impacted greatly on Lee Gwang-su's autobiographical writing and the narcissism in it can be found most distinctly in *His Autobiography*. Lee Gwang-su wanted the late Tanjae as well as the late Tosan to ratify the justice of his life and deeds represented through his narcissism. That intention is clearly found also in *My Confession* which he wrote in the turbulent situation after the Liberation.

Keywords : Lee Gwang-su's Literature, Narcissism, Autobiographical Writing, Tosan, Tanjae

접수일자: 2019. 3. 22.

심사기간: 2019. 3. 24.-2019. 4. 10.

게재결정: 2019. 4. 14.